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8.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금융연구원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8.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금융연구원



차 례

I. 재분석 배경	1
II. 재분석 방법	2
III. 재분석 결과	3
1. 거시경제 효과	3
(1) 성장 및 후생 수준	3
(2) 고용	5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6
(4) 외국인 투자	7
2. 산업별 효과	8
(1) 제조업	8
(2) 농업	11
(3) 수산업	12
(4) 서비스업	14
(5) 제약업	17
IV. 결과 종합 및 평가	18

I . 재분석 배경

- '07.4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GDP, 고용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제조업, 농업 등 각 산업에의 영향을 분석
- 그러나 분석 이후 4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교역규모, 관세율 등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 한편으로 '10.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를 포함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의 전반적 재분석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11.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 * '07년 참여 분석기관 중 조직이 통폐합된 방송위원회는 참여하지 않고 관련 분야인 방송서비스 분야 분석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를 수행
- 수출입 통계 등 분석을 위한 data는 현재 이용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추가협상으로 달라진 내용도 반영
 - * (예시) 제조업 분야: 기존분석 '03~'05년 통계 → 금번분석 '06~'08년 통계
-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07년 분석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당시의 분석틀을 그대로 사용
- 제조업, 농업 등 분석대상 분류와 FTA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는 분석기간 등도 동일하게 유지

II. 재분석 방법

□ 거시경제 효과

- (분석기관) 분야별로 5개 연구기관이 분석
 - * GDP·소비자후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인투자(산업연구원), 고용(노동연구원), 무역수지(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 (분석방법) GDP·소비자후생은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활용하되, 통계는 미 페듀대가 생산한 최신 버전('10년 출시)인 GTAP #7.1^{**}을 사용
 - *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대내·외 부문을 통합한 모형으로 범세계적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사용
 - **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각국의 GDP, 인구, 관세율, 교역통계 등을 포함하는 Data set으로 FTA 효과분석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초 data
- 고용은 CGE모형에 따른 생산물 증감 규모에 고용유발계수 추정치를 적용하여 산출
- 무역수지는 부분균형 분석에 의해 산출한 개별 산업별 수출입의 영향을 합산^{*}
 - * GTAP Data가 최근의 산업별 경제여건 변화는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07.4월 분석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

□ 산업별 영향

- (분석기관) 분야별로 8개 연구기관이 분석
 - * 제조업(산업연구원), 농업(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해양수산개발원), 서비스업(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금융연구원), 제약업(보건산업진흥원)
- (분석방법) 발효일 이후 15년간 관세 변화에 따른 수출입의 변화를 추정하고 이로 인한 생산 변화 등을 분석
 - 수출입 등 기초 통계는 '06~'08년^{*} Data를 사용('07년 분석에는 '03~'05년 자료를 사용)
 - * '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예외적 상황으로 분석 대상 기간에서 제외

III. 재분석 결과

1 거시경제 효과

(1) 성장 및 후생 수준

□ (GDP) 실질 GDP는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반영되어 우리경제의 변화와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 후 새로운 균형상태에 도달하는 기간 중 발생하는 효과

- 단기적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교역 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에 따라 실질 GDP가 0.02% 증가

-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5.66% 증가

* (자본축적) 관세감축에 의해 증가된 국내생산(Y) 가운데 일부가 다시 투자(I)로 재투입되어 생산능력을 확충

** (생산성 향상) 중장기적으로 개방을 통한 기업간 경쟁환경의 강화, 선진 기술의 이전, 국내 제도·규범의 투명화, 선진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 제조업은 1.2%p, 서비스업은 사업서비스에 한해 1%p의 생산성 향상 효과 반영

□ (후생 수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단기 5.3억\$~장기 321.9억\$의 소비자후생 증가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 축적(장기)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 GDP(%)	0.02	0.48	5.66
후생 수준(억\$)	5.3	25.5	321.9

- (기존 분석과의 비교) 장기적 GDP 증대 효과는 '07년 분석과 유사하며 후생 증가 효과는 장기적으로 '07년 분석보다 큼

<실질 GDP 및 후생효과 비교>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 축적	
실질 GDP(%)	'07년 분석	0.32	생산성 증대 미고려(중기)	생산성 증대 고려(장기)
	'11년 분석	0.02	0.48	5.66
후생 수준(억\$)	'07년 분석	17.0	39.8	208.6
	'11년 분석	5.3	25.5	321.9

- 다만, 단기와 중기의 GDP와 후생효과는 '07년 분석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단기 · 중기의 성장 및 후생 효과가 낮아진 이유

- 재분석에 사용된 **GTAP #7.1** 모형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율이 GTAP #6에 비해 하향 조정되어 단기 및 중기 GDP 분석시 관세철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짐
 - * 한국의 對미 평균 관세율: (GTAP #6)15.8% → (GTAP #7.1)6.5%
 - * GTAP #6에서는 농산물 관세를 수백%대인 명목상 양허관세(예시: 곡물 435%)로 설정한 반면, GTAP #7.1에서는 수입쿼터, 할당관세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실행관세(예시: 곡물 4%)로 Data를 교정
- 이에 따라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품 가격인하 효과가 기존 분석에 비해 축소되고, 해당 물품을 중간재로 투입하는 산업의 소비 · 투자 수요 증가폭도 낮아져 GDP와 후생 증대 효과가 작아짐

- 그러나, 관세가 철폐된 중장기 이후에는 경쟁촉진 등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 장기적인 성장효과는 '07년 분석과 유사한 수준

(2) 고 용

- 한·미 FTA 이행으로 취업자가 3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4천 3백명 증가
 -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3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미 FTA의 고용효과(천명)>

구 분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효율개선 (단기)	자본축적	
		생산성 증대 미고려(중기)	생산성 증대 고려(장기)
고용창출 효과	4.3	40.6	351.3
· 제조업	2.3	14.8	81.6
· 농림어업	△0.7	△2.0	0.5
· 서비스업	2.7	27.8	269.2

-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어업도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비중 증대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기존 분석과의 비교) 취업자는 장기 GDP 증가효과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 분석(33.6만명)과 유사한 수준인 35.1만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

<기존 분석과의 결과 비교(장기, 천명)>

구 분	기존분석	재분석
취업자	336	351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한·미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對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7억\$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
 - **對세계** 수출은 31.7억\$ 증가하지만, **對세계** 수입은 4.0억\$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30.3억\$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농수산업에서는 연평균 2.6억\$ 적자가 발생
- **對미**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4억\$ 흑자가 확대
 - **對미** 수출은 연평균 12.9억\$ 증가하고, 수입도 11.5억\$ 확대
 - * **對미** 수입 증가규모보다 **對세계** 수입 증가규모가 작은 것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던 제품이 한·미 FTA로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는데 기인
 -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연평균 5.7억\$ 흑자, 농수산업에서 연평균 4.3억\$ 적자가 발생

<한·미 FTA에 따른 수출입·무역수지 증감(15년간 연평균, 백만\$)>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제조업	3,167	1,285	138	711	3,029	573
농업	-	-	264	424	△264	△424
수산업	-	0.8	-	11.8	-	△11.0
합계	3,167	1,285	402	1,147	2,765	138

※ **對세계** 수출입과 **對미** 수출입의 차이 원인

- (수출: **對세계**>**對미**) 한·미 FTA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동시에 증가
- (수입: **對세계**<**對미**)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던 물품이 한·미 FTA에 따라 가격이 인하된 미국산으로 수입선이 전환

□ (기존 분석과의 비교) 한·미 FTA에 따른 對세계 무역수지 증가폭은 기존 분석에 비해 크게 확대

- 기존 분석에서는 15년간 연평균 21.2억\$의 흑자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흑자 증가폭이 27.7억\$로 확대
 - 그간의 제조업 수출 증가세가 최신 통계에 반영됨에 따라 무역수지 확대 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제조업 수출(억\$): ('03~'05년 평균)2,278 → ('06~'08년 평균)3,398 (49.2%↑)
 <재분석 결과 對세계 무역수지 변동(15년간 연평균, 백만\$)>

	무역수지	제조업	농업	수산업
'07년 분석(A)	2,122	2,352	△230	-
'11년 분석(B)	2,765	3,029	△264	-
증 감(B-A)	643	677	△34	-

- 對미 무역수지는 증가폭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개선효과(흑자 확대)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

- 무역수지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최신 통계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수출보다 크게 확대된 수입증가 추세가 반영된 효과

* 對미수출(억\$): ('03~'05년 평균)395 → ('06~'08년 평균)451 (14.2%↑)
 * 對미수입(억\$): ('03~'05년 평균)281 → ('06~'08년 평균)364 (29.5%↑)

<재분석 결과 對미 무역수지 변동(15년간 연평균, 백만\$)>

	무역수지	제조업	농업	수산업
'07년 분석(A)	415	796	△370	△10.9
'11년 분석(B)	138	573	△424	△11.0
증 감(B-A)	△277	△222	△54	△0.1

(4) 외국인 투자

□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 개선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

*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외국인투자 보호 수준 등에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 분석결과와 동일함

2 산업별 효과

[1] 제조업

□ (수출입) 관세 인하 등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對세계 수출은 연평균 31.7억\$ 늘어나지만 수입은 1.4억\$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 흑자가 30.3억\$로 크게 늘어날 전망

* 농업의 관세철폐가 대부분 15년 이내에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일관성유지를 위해 제조업의 경우에도 분석기간을 15년으로 설정

<한·미 FTA에 따른 對세계 수출입 증가액(15년간 연평균, 백만\$)>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자동차	1,171	41	1,131
전기전자	826	△32	858
섬유	138	13	125
일반기계	179	28	152
화학	311	21	291
철강	34	△6	40
기타	508	75	433
제조업 전체	3,167	138	3,029

○ 對미의 경우도 향후 15년간 수출이 연평균 12.9억\$, 수입은 7.1억\$ 증가하여 연평균 5.7억\$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한·미 FTA에 따른 對미 수출입 증가액(15년간 연평균, 백만\$)>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자동차	722	97	625
전기전자	161	145	16
섬유	105	24	81
일반기계	58	89	△31
화학	46	135	△89
철강	7	2	5
기타	186	219	△34
제조업 전체	1,285	711	573

- (생산)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8조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증가 효과(2.9조원)가 가장 크고, 전기전자(2.0조원), 화학(0.9조원) 순으로 생산 증가가 크게 나타남

<한·미 FTA에 따른 제조업 생산 증가액(연평균,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자동차	28,813	13,061	36,419	36,960
전기전자	20,490	10,327	25,390	25,755
섬유	3,006	1,968	3,431	3,619
일반기계	5,607	2,697	7,026	7,099
화학	9,007	4,200	11,118	11,702
철강	5,073	2,450	6,333	6,437
기타	15,695	7,546	19,224	20,412
제조업 합계	87,691	42,249	108,941	111,984

- (기존 분석과의 비교) 對세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07년 분석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만 對미 흑자는 다소 감소

- (對세계 수출입) 對세계 수출은 최근 통계에 나타난 제조업 수출 증가추세가 분석에 반영되어 증가규모가 확대

* 제조업 對세계수출(억\$): ('03~'05년 평균)2,278 → ('06~'08년 평균)3,398 (49.2%↑)

- 반면, 對세계 수입은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경쟁력이 제고되어 감소하고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

<對세계 수출입의 영향(15년 연평균, 백만\$)>

구 분	기존분석 <'03~'05 통계>	재분석 <'06~'08 통계>
수 출(A)	2,547	3,167
수 입(B)	195	138
무역수지(A-B)	2,352	3,029

- (對미 수출입) 기존 분석에 비해 수출이 다소 줄고 수입이 늘어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최신 교역통계에 반영된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보다 큰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
 - * 제조업 對미수출(억\$): ('03~'05년 평균)379 → ('06~'08년 평균)416 (9.7% ↑)
 - * 제조업 對미수입(억\$): ('03~'05년 평균)245 → ('06~'08년 평균)309 (26.1% ↑)

<對미 수출입의 영향(15년 연평균, 백만\$)>

구 분	기존분석 <'03~'05 통계>	재분석 <'06~'08 통계>
수 출(A)	1,387	1,285
수 입(B)	591	711
무역수지(A-B)	796	573

- (생산) 증가된 최신 생산통계 반영, 對세계 무역수지 흑자 규모 증가 등에 따라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이 늘어남

<제조업 생산 증가액 비교(15년 연평균, 억원)>

구 분	합 계	자동차	전기 전자	섬유	일반 기계	화학	철강	기타
기존분석(A)	55,324	28,542	11,903	4,846	1,539	3,584	591	4,304
재 분 석(B)	87,691	28,813	20,490	3,006	5,607	9,007	5,073	15,695
증 감(B-A)	32,367	271	8,587	△1,840	4,068	5,423	4,482	11,391

(2) 농업

- (수입)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對미 수입은 연평균 4.2억\$ 증가하고, 對세계 수입은 2.6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
 - 對미 수입 증가폭에 비해 對세계 증가폭이 작은 것은 한·미 FTA로 수입선이 다른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전환되는 효과에 기인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對미 수입 증가액(백만\$)>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對미 수입 증가(A)	424	233	449	591
타국 수입 증가(B)	△161	△88	△170	△224
對세계 수입 증가(A+B)	264	145	279	367

* 수출은 분석대상 품목(20개)의 수출실적이 미미하여 분석에서 제외

- (생산) 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수준
 -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축산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4,866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15년 연평균, 억원)>

	합 계	축산	과수	채소·특작	곡물
생산감소액	8,150	4,866	2,411	655	218

* 발효 이후 15년 이전에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은 종료되는 해의 생산감소액이 15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생산감소액을 산출

- (기존 분석과의 비교) 對미 수입이 기존 분석에 비해 다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감소분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분석결과 차이는 최신통계 반영 과정에서 그간의 농산물 對미 수입의 급증과 생산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에 기인

* 對미 농축산물 수입액(억\$): ('03~'05년 평균)25.6 → ('06~'08년 평균)41.3
 * 농업 생산액(조원): ('05)35.1 → ('08)38.5

<기존 분석과의 비교(15년 연평균)>

구 분	기존분석 <'80~'05 통계>	재분석 <'80~'08 통계>
對미 수입 증가(백만\$)	370	424
생산감소(억원)	6,698	8,150

[3] 수산업

- (수입) 수산물의 對미 수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178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품목별로는 명태(459만\$), 넙치(293만\$), 아귀(96만\$) 등의 순으로 수입증가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수출) 수산물의 對미 수출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78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對미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다랑어와 굴 등으로 분석

<對미 수출입 증가액(천\$)>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수 입	11,777	8,561	12,768	14,002
수 출	776	374	867	1,086

□ (생산) 향후 15년간 연평균 295억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분석

- 생산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은 원양산업으로서 연평균 154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

* 원양산업의 주요 조업품목인 명태 등은 미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미국산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

<어업별 생산 감소액(백만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합 계	29,542	16,877	31,731	40,016
연 근 해	8,741	4,460	9,553	12,209
양 식	4,924	3,515	5,227	6,029
원 양	15,401	8,651	16,406	21,146
내 수 면	476	252	544	632

□ (기존 분석과의 비교) 한·미 FTA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 증가는 기존분석과 유사하며, 생산감소폭은 소폭 증가

*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06~'08년 수출 실적이 없어 기존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용

- 최근 통계에 반영된 수산물 對미 수입이 기존분석시와 유사한 수준이나 수산물 생산은 기존통계 대비 증가한 데 기인

* 對미 수입: (기존분석, '04~'06년 평균)146만\$ → (금번분석, '06~'08년 평균)145만\$
* 수산물 생산: (기존분석, '04~'06년 평균)5.0조원 → (금번분석, '06~'08년 평균)5.8조원

<기존 분석과의 비교(15년 연평균)>

	기존분석 <'04~'06 통계>	재분석 <'06~'08 통계>
對미 수출(천\$)	776	776
對미 수입(천\$)	11,738	11,777
생산 감소(억원)	281	295

(4) 서비스업

(1) 방송 서비스

□ (방송쿼터 축소) 한·미 FTA로 국산 영화 쿼터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 쿼터가 35%에서 30%로 각각 5%p씩 축소

○ 이에 따른 영화·애니메이션 산업의 소득 감소 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51.9억원 수준으로 분석되어 '07년 분석(26.9억원 감소)에 비해 소득감소폭이 확대

- 이는 최신통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방송서비스 매출 ('05년 438→'08년 905억원) 및 동 산업의 부가가치율 증가 추세 ('03~'04년 평균 25%→'06~'08년 평균 34%)가 반영된 데 기인

<방송쿼터 축소에 따른 연평균 소득 감소액(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51.9	49.3	53.2	53.2

□ (PP시장 개방) 협정 발효일 3년 후부터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분의 100%까지 외국인 간접투자를 허용

* 고유채널을 가지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 이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323억원 증가하고 소득은 연평균 90억원 증가 예상

- 생산증가액은 기존분석(328.6억원)과 유사하나, 소득증가액(89.8억원)은 최신통계 반영 과정에서 동 산업의 부가가치율 감소 ('05년 34.5%→'09년 27.8%)에 따라 기존분석(113.4억원)에 비해 감소

<PP 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 및 소득 증가액(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생 산	323.2	22.8	176.0	770.8
소 득	89.8	6.3	48.6	214.3

[2] 지적 재산권

- (지적 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출판·음악·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
 - 이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할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89억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분석(71억원)에 비해 증가
 - 이는 최신통계 반영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되는 저작물이 캐릭터 부문에서 증가한 데 기인
 - 추가 지불 저작권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캐릭터 저작물로 향후 20년간 연평균 57억원으로 예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불 저작권액(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출판	31.6	30.6	33.7	31.1	31.1
음악	0.7	0.5	0.7	0.8	0.8
캐릭터	57.1	33.6	50.4	65.4	78.8
합계	89.4	64.7	84.8	97.3	110.7

[3] 통신 서비스

- (통신분야 시장 개방) 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 (KT, SKT 제외) 지분의 100%까지 외국인 간접투자를 허용**

* 교환설비·선로 등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인터넷접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현행은 외국인의 직·간접 투자를 49%까지만 허용

- 외국인의 진입 확대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710억원, 소득은 31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
 - * '07년 분석 결과(생산은 693억원, 소득은 303억원 증가)와 유사한 수준
- 다만, 외국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배당 이익 등 해외 이전 증가 등 영향도 예상

(4) 금융 서비스

- 한·미 FTA 협상 결과 금융부문에서 일부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비대면방식^{*}에 의한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 허용의 경우 실질적인 거래 확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미국 금융기관이 현지에서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 손해사정, 위험평가 등 보험부수 서비스업은 현재도 허용되고 있는 거래로서 이를 양국이 상호 확인하는 수준
- 한편, 금융 관련 법령·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선진화될 경우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지점이나 현지법인의 자산관리·회계 등 후선업무를 본점·계열사에 위임토록 허용하여 Back Office 부문의 비용절감
 - 한국의 금융제도·회사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높여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금융회사의 영업여건 개선도 기대
 - * 미국 규제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시 해당 금융회사 모국 (home country)의 규제감독 수준을 명시적·비명시적으로 고려

(5) 법률 서비스

-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국제 공법 및 자격취득국의 법률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
 - 이에 따라, 국내에서 보다 양질의 국제거래 관련 자문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한편,
 - 외국 유수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관계를 통해 국내 로펌들이 세계적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효과 기대

(5) 제약업

- (수출입) 제약업의 對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334만\$ 증가하여 對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 확대될 것으로 예상

<제약업 對미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만\$)>

	연평균	1~5년	6~10년
수입증가액(A)	1,923	1,662	2,184
수출증가액(B)	334	261	406
무역수지(B-A)	△1,590	△1,401	△1,778

- (생산 및 소득)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1,197억원 감소, 소득은 457~7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제약 분야의 경제적 효과(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생산 감소	686~1,197	492~810	880~1,584
소득 감소	457~797	328~539	586~1,055

- (기존 분석과의 비교) 對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07년 분석과 유사하나, 생산감소액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3년 유예에 따라 기존 분석에 비해 축소(부정적 효과가 줄어듦)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생산감소액 축소에도 불구하고, 제약업 부가가치 유발 계수('03년 0.412→'07년 0.666)가 증가하여 이를 적용한 재분석의 소득 감소폭은 기존 분석에 비해 확대

<기존 분석과의 비교(10년간 연평균)>

	기존분석	재분석	증감(B-A)
對미 무역수지(만\$)	△1,640	△1,590	50
생산감소(억원)	904~1,688	686~1,197	△218~△491
소득감소(억원)	372~695	457~797	85~102

IV. 결과 종합 및 평가

- 분석의 기초가 되는 통계를 update함에 따라 항목별로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가 '07년 분석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성장·고용·무역수지 증가를 통해 국익에 기여한다는 점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됨
 - ① (성장) 교역확대,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 선진화 등을 통해 실질 GDP가 5.66% 증가(기존분석은 5.97%)
 - ② (고용) 35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기존분석은 33.6만명)
 - ③ (무역수지) 對세계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27.7억\$ 증가하여 무역수지 개선과 성장기반을 강화(기존분석은 21.2억\$)
 - 對미 무역수지는 여전히 연평균 1.4억\$의 흑자 예상 (기존분석은 4.2억\$)
- 농수산업 부문은 15년간 연평균 8,445억 원(농업 8,150, 수산업 295) 수준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 피해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농수산업 지원대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 이를 더욱 보완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피해는 충분히 보전될 수 있음
 - * 생산감소액은 15년간 총 12.7조원 수준(농업 12.2조원, 수산업 0.4조원)이나, 10년간 21.1조원을 투입하는 한·미 FTA 보완대책('07.11월)이 기 마련되어 있음
- 서비스업 개방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으로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특히,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공공성 침해 소지가 있는 분야는 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 속도를 조절
 - * 법률·회계는 단계적 개방, 교육·의료는 미개방

별 첨**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총괄)****(거시경제효과)****[1] GDP와 후생수준 및 고용**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 축적	
		생산성 증대 미고려(중기)	생산성 증대 고려(장기)
실질 GDP(%)	0.02	0.48	5.66
후생 수준(억\$)	5.3	25.5	321.9
고용(천명)	4.3	40.6	351.3

[2] 무역수지(15년 연평균)

(단위: 백만\$)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제조업	3,167	1,285	138	711	3,029	573
농업	-	-	264	424	△264	△424
수산업	-	0.8	-	11.8	-	△11.0
합계	3,167	1,285	402	1,147	2,765	138

[3] 외국인 투자

(단위: 억\$)

	향후 10년간 연평균
외국인 직접투자	23~32

[산업별 효과]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제조업>				
對세계 수출 증가(백만\$)	3,167	1,690	3,897	3,916
對세계 수입 증가(백만\$)	138	293	58	64
생산 증가(억원)	87,691	42,249	108,941	111,984
<농업>				
對미 수입 증가(백만\$)	424	233	449	591
對세계 수입 증가(백만\$)	264	145	279	367
생산 감소(억원)	8,150	4,668	8,477	11,710
<수산업>				
對미 수출 증가(천\$)	776	374	867	1,086
對미 수입 증가(천\$)	11,777	8,561	12,768	14,002
생산 감소(억원)	295	169	317	400
<서비스업>				
① 방송쿼터 축소				
- 소득 감소(억원)	51.9	49.3	53.2	53.2
② PP시장 개방				
- 생산 증가(억원)	323.2	22.8	176.0	770.8
- 소득 증가(억원)	89.8	6.3	48.6	214.3
③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 저작권료 지불*(억원)	89.4	64.7	84.8	97.3
④ 통신시장 개방				
- 생산 증가(억원)	710	184	935	1,166
- 소득 증가(억원)	310	80	409	510
<제약업>				
- 생산 감소(억원)	686~1,197	492~810	880~1,584	-
- 소득 감소(억원)	457~797	328~539	586~1,055	-

* 저작권료 지불 : 연평균은 향후 20년간을 의미, 16~20년차는 110.7억원